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3월 30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23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갑자기 찾아온 위중한 병의

고통을 잘 이겨내고

장애 없이 낫도록 신유의 은혜를

배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김 경 옥 -

지난해 12월, 수요일 저녁에 어느 때와 다른없이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한 후 예배에 참석했다가 동행한 권사님과 구역장님을 집 앞에 내려드리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 중에,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로 제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편의 빠른 대처로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일까’ 가족과 더불어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저는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저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병원에서 MRI검사 결과 뇌지주막하출혈(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였고 또 의료대란의 여파가 여전한 중에 의사선생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다른 병원에 곧바로 이송되어, 개두술이 아닌 대퇴동맥을 통해 관을 삽입하여 코일색전수술을 받아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경에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깨어나니 제가 중환자실내 집중실에 있었습니다. 뇌압이 높아져 진통제 수액을 맞아도 두통이 심하고 속이 메스꺼우며, 배뇨조절에 이상이 생겨 계속 물을 마시며 얼음찜질을 했지만 안압 수치가 높아 귀와 뒷목까지 통증이 극심했습니다. 뇌압을 낮추기 위해 척추에 관을 삽입하여 척수액을 뽑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딸이 가장 먼저 교회의 교구전도사님에게 연락드렸습니다. 교역자님들과 교구에서 많은 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딸이 시시각각 저의 상태를 전도사님께 알리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저는 딸을 칭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낫게 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생활한 것이 가족들 눈에 헛되게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에 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포일성전 은혜와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생각하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던 6일 동안 특히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반복해서 듣고 감사기도를 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척추에 삽입한 관을 빼고 집중치료실로 옮겼는데 또 뇌압이 올라 다시 삽입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겁이 나고 무서웠는데, 기이하게도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모든 치료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저를 돌보아주시심이 느껴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와 간병인을 구할 때도 좋은 분을 만나게 되길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친절엄마처럼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살펴주는 분을 만나 한결 마음이 편하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의 기도, 정성을 다해 저를 치료하고 돌보아주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 그리고 가족의 사랑의 손길이 너무도 고마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생활은 비록 몸은 아팠어도 그동안 지쳐 있던 저의 마음과 영혼을 육신의 병과 함께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40여년간 4형제를 기르시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만며느리로, 아내와 엄마로 살면서 지쳐 있던 몸과 마음이 치료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 사랑의 손길, 사랑의 표현이 훌륭한 치료약임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머리의 통증이 완화되고 옆에 있는 나이든 환자분과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분이 무언가 물어보고 싶다며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여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지만 5년 전부터 교회에 안 나가고 있고 의사선생님의 만류에도 병원비 때문에 밖에 나가야 해서 퇴원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불신앙의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성경 구절들을 읽어드리고 저의 체험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끝까지 치료를 잘 받으시도록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매우 좋아하시면서 퇴원하면 교회부터 나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함께 조용히 듣고 계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복음이 잘 전해졌길 바라면서 병상에 있는 중에도 전도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저의 아픔을 통해 아이들과 남편이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인식하여 서로 간에 자주 연락하며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가까이서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삶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팔과 다리에 어떤

장애가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심하게 저를 보살펴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배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집에 돌아오자 교회의 권사님과 아는 분들이 반찬 등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주시며 저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셨습니다.

퇴원하여 설명절을 앞두고 집안의 제사문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구역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폐하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했는데, 함께 기도하고 애쓴 구역의 다른 분들 가정과 달리 저의 가정은 여전하므로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구 전도사님에게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였더니 곧바로 전도사님이 심방오셔서 시어머님에게 진정한 복, 크고 놀라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권면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시어머님이 결단을 하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이제부터 조상에 게 제사드리는 일을 하지 말라며 공표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분리수거를 하는 날에 시어머님이 직접 제기 그릇들을 내다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저희 가정의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역예배에서 구역의 권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어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너무 많아 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2005년 9월 제가 처음 은혜와진리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그날부터 은혜로운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루하루 풍성한 영혼의 양식을 삼고 성경적인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여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극심한 고통을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장애 없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신유의 은혜를 배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자녀가 부모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가 극한 고통을 겪을 때,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또 큰 상을 받은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며 잘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큰 위로를 받고 저의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로서 남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의무를 생각하고 믿음과 사랑의 언행을 하며 주님 앞으로 이끌도록 성령께서 새롭게 저를 감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남편과 사위도 곧 구원해 주시고 온 가족이 모이면 집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찬송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구역공과

제2권 (제9단원 : 시험을 이기는 성도)

(제42과) 상처입은 영혼을 치료하는 방법

- 본문 : 호세아 6:1-3

• 요절 :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

• 찬송 : 412장(새찬송가 290장), 423장(새찬송가 374장)

시편에는 성도들이 영혼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가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시 143:3~7)

이처럼 성도들이 죄악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 그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형제들의 아픔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이끌어 줌으로 그 상처가 속히 치료되도록 도와주는 일은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힘써 행해야 하겠습니다.

1.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형제는 너무 지치고 피곤한 나머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야말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좋은 처방이 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쁜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할 때에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빌 4:6) 상처 입은 영혼으로부터 분노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까닭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서 애굽 땅에 끌려가서 술한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 기근에서 부친과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다 구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창 45:5~8)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 대신 자기가 당한 모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형제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떨쳐 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생기발랄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2. 기뻐하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형제는 그 생활에서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기쁨은 어둡던 마음을 밝게 만들지만 근심은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고 생활을 점점 더 어렵게 이끌어 갑니다. 기쁨이야말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매우 효과적인 약이 됩니다. 성경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잠 17:22)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갈 5:22). 사도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미움, 두려움, 절망, 분노 등의 형태로 남아있던 마음의 상처들은 사라지고 치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어두운 방에서 전등을 켜면 어두움을 애써 몰아내지 않더라도 전등을 통해 밝혀진 빛으로 인해 방안에 가득했던 어두움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방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차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신음하는 형제들에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권면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기뻐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형제로 하여금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그의 마음의 상처를 잘 아물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상처입은 믿음의 형제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영혼과 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추호도 원한이나 분노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기를 못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사랑으로 가득찼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마음에 상처 입은 믿음의 형제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그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동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동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